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ol.22 No.4(December 2015), 465-479
농촌지도와 개발 vol.22.No.4 ISSN 1976-3107(print), 2384-3705(online) http://dx.doi.org/10.12653/jecd.2015.22.4.0465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의 의료담론 분석

- 농촌생산물의 소비담론을 중심으로 -

이성오*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28-56)

A Study on Medical Discourse of Oriental Medicine and Health Functional Foods

- Focusing on the Consumption Discourse Analysis of Homegrown Agricultural Products -

Seong-O, Lee

Department of Arch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s consumers' medical discourse embedded in the consumption of oriental medicine and health functional foods. Despite the fact that both of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is legally accepted, people tend to recognize that accurate diagnosis is possible only in the latter. As the discourse that oriental medicine, compared with western medicine, has an auxiliary position is widely spreaded, the rivalry between herbal medicine and health functional foods come to be formed. And it led to a close correlation between the decrease of herbal medicine consumption and the growth of health supplement market. Herbal medicine is compared to red ginseng, one of the representative health supplement. Negative notion such as using an Asian herb from China and side effect of hepatotoxicity influences herbal medicine consumption. This study argues two conclusion.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nsumption of herbal medicine and that of health functional foods results from the discourse of scientific reconstruction, standard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all of which come from globalization discourse. Second, medical discourse embedded in these commodity, in the end, has impact on agricultural production.

Key words: discourse, oriental medicine, health functional foods, scientific reconstruction

1. 서 론

이 연구는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의 생산과 소비에서 발견되는 의료담론 분석을 통해 향후 농촌산업이 경제성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서술한다.

식습관의 변화에 따라 쌀 소비가 줄어 쌀 생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것처럼 농촌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소비는 소비자가 이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따라 좌우된다. 농촌에서 생산되는 원료는 '소비자의 인식을 지배하는 주된 담론'에 의해, '동시대를 지배하는 주된 담론'에 따라 만들어진,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담론을 겨냥하여 만든 상품'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해당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의료담론'이 그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마늘'은 식용작물이었지만 2015년 1월 1일자로 '마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건강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마늘'이 '식용'에서 '의약품'으로 바뀌면서 '의료담론'이 개입하게 된 것

주요어: 담론, 한약, 건강기능식품, 과학화

* 교신저자(이성오) 전화: 063-432-1771 e-mail: dorazio@hanmail.net

ⓒ 2015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이다. 농촌산업 중 원료생산과정에서 의료적 고려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농업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의 의료 담론을 잘 포착해야함을 드러내는 사례가 "'한약재'라도 '한약'과 '한방화장품'이냐"에 따라 소비가 달라지는 현상과 '한약'과 '건강기능식품'간의 연관성이다. 3가지 항목 중 한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한약'이외에도 처방이 필요 없는 '한방제품'과 '건강기능식품' 또한 '건강'이라는 의료담론을 통해 소비자가 이들을 바라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한방제품'에 대해 알아보자. 화장품 시장은 경기침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2011년 6조 3865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중 약사법 규정에 의해 전통 한의서 11종에 수재된 약재로 만든 화장품을 지칭하는 한방화장품은 1조 3642억 원 규모로 전체 화장품 시장의 23.6%를 차지한다(이상원, 김승유, 김영옥, 김형돈, & 손상현, 2012). 반면 한약시장은 정체되거나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차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환자수가 줄었다는 한의원은 61.5%였다. 환자 수가 줄었음에도 한방관련 의료기관의 수는 매년 평균 460여 개씩 증가하여 2001년 7,630개에서 2012년 12,639개로 늘어났다(정명진, 김수민, 윤지영, 김근령. & 윤성근, 2013). 하지만 2,671개 한약 소비기관에 대한 조사에선 2010년 주요 한약재 33종의 구입량이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주요 한약재 21종의 경우 전체 구매량이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매년 배출되는 한의사로 인해 한의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정량 한약재 소비가 늘어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는 결과는 현재 한약 소비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방제품'과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건강기능식품'과의 연관성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성장세가 '한방제품'과는 달리 감소하고 있는 '한약' 소비와 관련한 진단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논리가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체・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된다. 건강기능식품은 2004년 이후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2004년 1월 3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장이 정리되고 도약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이종원 & 도재호, 2005). 한약을 대신한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홍삼이 손꼽힌다. 홍삼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홍삼을 보약 대용으로 복용하고 있는 의료이용자들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성장과 감소의 측면에서 '한방제품'과 '건강기능식품' 대해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담론은 비슷하며 '한약'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방제품' 대신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과연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이 한약소비감소를 불러왔는가?" 만약 사실이라면 "건강기능식품이 한약의 대체재로 작용한 원인은 무엇인가?", "건강기능식품이 한약의 대체재로 작용할 때 이면에 내재해 있는 의미와 상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담론들을 관련 재료를 생산 유통시키는 농촌산업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5천년을 이어오면서 정통 주류 의학으로 자리매김했던 한방 의료가 '홍삼'이라는 하나의 상품 때문에 위축되었다는 분석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한약소비의 감소와 홍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소비의 성장이 이들 원료를 생산하는 농촌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에 내재해 있는 '질병치료' 혹은 '건강'을 위한 '의료담론'이 소비자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소비 담론을 만들어 내는 현상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관련 농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이 가지고 있는 의료 담론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술할 것이다. 첫째, 한약 소비감소와 건강기능식품의 성장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이 경쟁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한다. 둘째, 현재 한약에 부여되는 대중담론이 어떠한가를 밝혀 한약소비 감소에 내재해 있는 의미를 알아본다. 셋째,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홍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을 의료의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상품화의 관점에서 논한다.

2. 이론적 고찰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농촌산업 또한 동시대의 주된 담론인 '세계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FTA를 비롯하여 세계화 담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와 인식들이 농촌에 끼치는 영향들은 이를 증명한다.

세계화 담론은 농촌 고유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자본의 이

ⓒ 2015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익을 위해 '표준화'를 가장한 획일성을 추구한다. 게리 폴 나브한(2009)에 의하면 세계화 담론은 지역의 고유한 품종이 사라지고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으로 통용될 만한 작물만 살아남도록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송원규 & 윤병선(2012)에 의하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전 세계적 식품체계는 자본이 의도하는 데로 재구조화된다. 박경용(2008)에 의하면 한약업자의 쇠퇴는 농촌의 한약재 생산방식과 연관된다. 그리고 송기호(2010)에 의하면 수입 한약재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지' 연구를 통해 전통문화의 표준화가 "상품의 획일화가 아니라 창조성을 활성화시키는 플랫폼"(장세길, 2014: 125)이란 주장은 '표준화' 담론에 대한 기존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세계화 담론을 통해 음식, 식품, 그리고 약재를 위한 원료생산이 산업화되고 소비자는 담론을 통해 이들에게 접근한다. 소비자와 농촌생산 원료 간의 직접적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농촌지역에서 브랜드를 만들려는 노력(김미희, 박덕병, 노경희, & 손은호, 2010; 김윤호, 이나라, 이상영, & 황성원, 2013)과 마찬가지로 '음식' 또는 '식품'처럼 '먹거리'로 통칭되는 '담론'은 농촌생산물과 소비자를 '상징'과 '신뢰'를 통해 연결하는 매개물이다(캐롤 M. 코니한, 2005). 세계화가 주된 사회의 담론으로 등장하면서 '먹거리' 불안은 현실화되었다(김흥주, 2012). 먹거리 불안은 '생산'과 '유통'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박형신, 2010). 이런 면에서 한약과 건강기능식품 관련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대한 조사인 박충범, 강용구, 안태진, 김금수, & 한신희(2011), 이상원, 김승유, 김영옥, 김형돈, & 손상현(2012), 정호근 & 조국훈(2012) 등의 통계 조사는 현상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다. 반면, 도경록 & 박덕병(2013)의 '농촌음식을 통한 관광객 유치전략', 김경미, 문지혜, 정순진, & 이상미(2013)의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들은 '먹거리' 또는 '건강'처럼 농촌생산물을 통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농산물을 '건강' 목적으로 접근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된 구체적 '의료담론'을 통해 보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변화하는 의료이용자의 의료담론에 따라 소비되는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하였다.

'절대성'을 거부하는 사회구성주의, 후기 구조주의는 대중통제의 기제로 작동하는 '담론'을 분석한다. 푸코(2006)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담론에 의해 의료를 선택하는 대중의 인식은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한다(송백석, 2009; 이영아, 2010). 변화하는 대중의 의료인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개인화'흐름에 따라 수평적인 환자-의사 관계가 일상화 된 점이다(Clarke, A. E., Shim, J. K., Mamo, L., Fosket, J. R., & Fishman, J. R., 2003; Conrad, P. 2005). '개인화'는 모든 것을 시장화 시키는 담론의 핵심에 있으면서 동시대의 대중 담론에 영향을 주는 세계화에 내재되어 있는 주된 담론이다(스피박, 2006). 현재 양방위주로 전개되는 의료질서는 '개인화'를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상업화'로 귀결된다. '개인화'가 '상업화'로 이어지기 위해 자본의 힘과 더불어 개인의 인식변화가 선행된다(이지원 & 백승옥, 2012; 민가영, 2009).

'개인화'가 내재된 의료인식의 구체적 발현은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상업화 담론을 통해서이다. 이들에 대한 연구를 순차적으로 검토해 보자.

첫째, 의료의 '과학화'에 대한 논의이다. 양방은 계몽주의와 데카르트에 의한 심신이원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계몽주의의 특징인 '과학'은 '의학'과 동일시되는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의 절대성에 대한 논란 때문에 '과학적'이란 이데올로기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명진, 2001).

둘째, '표준화' 담론에 대한 연구이다. 현재 의료질서에서 요구되는 표준화는 양방위주의 표준화이다(김태우, 2011). 자본주의에서 발달해 온 양방의 본질 때문에 양방위주의 표준화는 세계화 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맥도날드식 표준화'를 통한 '사회적으로 내재화되는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를 현시대의 표준화라고 지적한 조지 리처(2003)의 연구는 큰 의의를 지닌다.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 대신 세계화를 위한 표준화 담론을 대중이 일상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 요구되는 표준화이다(박길성, 2008; 조영한, 2012; 손석춘, 2009).

셋째, '상업화' 담론에 대한 연구이다. 상업화 담론이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이유는 의료를 판단하는 대중 인식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김윤성, 2004; 허민호, 2012). 그리고 김원식(2009)에 의하면 대중과의 소통 또한 상업화에 기반 하여 이루어진다. "개인의 성패는 시장의 성패와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며 자아의 가치는 시장의 가치와 일치"(이영자, 2011: 114)라는 주장과 "'의료화'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시장적 가치로 삼지 않았던 영역이 시장 속에 포함되어 '시장화' 되고 있다"(강내희, 2008: 246)는 연구가 이를 증명하려 한다.

의료에 대한 이러한 인식 때문에 의료이용자들은 전통의

ⓒ 2015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학 또한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상업화’ 담론의 틀로 바라본다(나선삼, 2008). 한방은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상업화’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일반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들 담론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한방의 과학화에 대한 지적은 주로 양방에서 제기된다. 때문에 한방의 과학화 또한 양방의 과학화와 연계되어 해석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조병희, 2006b; 최종덕, 2003). 이상이, 김창보, 박형근, 윤태호, 정백근, & 김설웅(2009)에 의하면 양방의료가 상업화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양방이 주장하는 과학화가 결국은 의료의 ‘상업화’로 귀결된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마르시아 엔젤, 2007).

전통적으로 조선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의료는 인술(仁術)’이라는 인식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대가와 무관하게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였다(박윤재, 2007: 179-180). “의료서비스의 대상이 환자에서 소비자로 변화했다”는 주장(허민호, 2012: 290)과 “‘능동적 소비자’라는 담론 속에도 ‘건강을 소비의 한 품목으로 간주하는 상업주의가 숨어있다’”(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2008: 185)는 언급은 상업화의 논리가 자연스레 일상생활에 파고들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중이 의료를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연구는 표준화, 과학화, 상업화 담론이 주류의학인 양방을 제외한 주변화 된 의학이 어떻게 배제되는 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틀과 선행연구들은 양방의 헤게모니에 의해 주도되는 의료 질서와 한방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에 담겨있는 담론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농촌산업과 의료담론이 직접적으로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원산지로 하는 작물을 원료로 하는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담론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시도가 부족해 보인다.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에 담겨있는 담론이 농촌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향후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조사와 이를 통한 연구 방법은 3가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한방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언론기사를 수집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구체적인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더불어 이를 통해 일반인, 의사 그리고 한의사에 대한 인터뷰를 디자인하는 데 이용하였다.

둘째, 일반인과 의료인의 한방에 대한 담론을 포착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일반인 인터뷰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환자와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여 각각 20명씩 총 60명을 실시하였다. 1차 인터뷰를 토대로 2015년 6월까지 40명 정도의 일반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반인에 대한 인터뷰 중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의료인에 대한 인터뷰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91년부터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약사)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을 통해 한약소비의 성장과 감소의 현황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간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을 기획하면서 의료인들과 만남을 통해 들어왔던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지금까지 만나왔던 의료인들 중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한다고 연구자가 판단한 이들, 그리고 의료인 중 특화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다. 그 중 한의사 10명, 의사 3인, 치과의사 10인, 약사 2인을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한의사의 인터뷰 대상자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현재 한방 상황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이들을 선정하였다. 기존 한방 구성원에 불만이 많은 젊은 한의사, 안정적이었지만 경영적으로 불안해하는 한의사, 시민단체 활동을 한의사, 그리고 개업한의사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 인터뷰 대상을 나누었다. 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약사는 연구자가 만난 대부분이 한방에 대한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터뷰 대상자 중 본 논문에서는 연구주제와 가장 적합하면서도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했다고 판단한 주된 정보제공자인 한의사와 의사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였다. 91년부터 의료인들을 만나면서 지녀왔던 의문들, 문헌조사와 일반인과의 면접을 토대로 작성한 질문을 가지고 선별한 의료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시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 이전에 만났던 의료인에 대한 인터뷰도 참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농촌산업과 한약, 건강기능식품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OO 지역의 공무원과 인

터뷰를 2015년 9월 진행하였다. 해당 공무원은 해당 지역에서 홍삼 축제를 진행하는 실무자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홍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을 농촌지역의 생산과 유통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하는지에 정보를 얻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인터뷰 내용은 모두 가명 처리하였으며 정보제공자의 나이, 직업(의료인의 경우), 성별, 면담 시기 등을 적시하였다.

셋째, 첫 번째 문헌조사와 언론 기사 수집, 두 번째 일반인, 의료인에 대한 인터뷰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의료와 관련된 법을 참조하였다. 의료 관련 법 중 의료의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상업화 관련 항목들에 대한 법조문을 기존 조사 분석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법을 동시대의 담론이 집약된 것으로 보았기에 한약소비와 건강식품과 관련된 법조항과 기존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담론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담론의 변화가 담겨 있다고 판단한 제정과 개정이유에 집중했다. 연구를 위해 참조한 법은 총 13개 법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의료법'을 인용하였다.

4.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쟁관계 형성과정

이 장에서는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이 경쟁관계 형성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한약소비와 건강기능식품과의 상관관계는 '경쟁'에서 비롯된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의 한약 소비실태조사에서 국산 한약재 생산량은 감소추세인 반면, 한약재 수입량은 증가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총 생산액은 2012년 기준 1조 4091억원이며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쟁관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담론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정확한 진단 후 치료'라는 담론이다. 한방은 예로부터 장점으로 전일론적 치료를 내세웠다. 한약분쟁 당시에도 이러한 한방의 홍보는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때문에 치료가 더디더라도 한약을 장복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명제도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점점 치료방식에 대한 대중의 선택은 점점 '맹목적'이기보다는 '전략적' 모습을 띠게 된다.

이위천(74세 남성)씨의 경험에는 연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의료이용자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라는 담론이 내재해 있었다. 과거에 우울증을 앓았던 병력을 가지고 있던 그의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원인만 알면 고친다. 단지 정확한 진단을 하기까지가 오래 걸린다. 내가 10년 전에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여러 병원을 전전했다. 한방병원에 가서 입원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방병원 가지 말고 대학병원 가서 CT, MRI 찍고 해서 정확한 진단을 했어야 했다. 결국 대학병원 가서 약 먹고 나아졌다. 남편도 진작에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 받았으면 되었을 텐데 괜히 여러 병원 왔다 갔다 하다 시간만 낭비했다. …[이위천 74세 남성, 면담일: 2015년 8월]

한명의 한의사가 몸의 모든 부분을 진료하는 것에 대해 과거엔 '전일론적'이라고 호감을 보였던 의료이용자들이 지금은 '정확한 진단'의 선행 이후 '증상에 따른 전략적 선택'의 경향을 드러낸다. CT, MRI 등 양방의 첨단 진단기기를 통해 이러한 담론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양방・한방 의사 모두 인정한다.

> CT, MRI에 대해 말하자면 뭐든지 정확한 진단을 해야 치료법이 나오는데 한의학 쪽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안되요. … 당뇨를 진단할 때 WHO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당뇨 같네요. …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니까… 일단 진단 자체가 안되요. … 그리고 요즘 검진을 많이 하는데… 기가 허하다면서 한의원 다닌 사람들 중에 암 같은 것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에요. … 조기 검진을 많이 하면서 이런 것이 발견되고 하면… 의사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불신 외에 한방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진 거죠. [조맹덕(명칭), 의사, 40세, 면담 일자: 2014년 2월]

'정확한 진단 후 치료'라는 담론이 양방의 진단기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있지 못한 한방은 자연스레 부정확한 진단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질병을 치료과정에서 놓치고 있다는 인식이다. 연구과정 중 주된 정보제공자였고 한방에 대해 자부심을 보였던 한의사 박호재씨는 CT, MRI 등 전문 진단기기가 의료이용자들 내에서 '정확한 진단 후 치료'라는 담론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인정했다.

ⓒ 2015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 단순히 검사 장비 몇 개와 한의학의 전일적 치료와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진료를 하다보면 생각이 바뀌긴 한다. 예전에는 CT, MRI 이런 것을 꼭 찍으라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찍어서 안다고 그것이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다. 환자들이 찜찜해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CT, MRI 등을 찍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나서 한방치료를 받으라고 권하기도 한다. …[박호재, 한의사, 48세, 남성, 면담일자: 2014년 1월]

그는 '고가의 의료장비'가 '정확한 진단'이라는 담론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방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는 담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다.

둘째, 한약은 의료이용자에게 양방의 보조적 수단으로 각인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한방은 양방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한방의 위치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대부분 부분적으로 전통의학으로 인정하지만 한방은 중국, 남・북한, 그리고 베트남과 함께 국가 의료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서양의학과 법, 행정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다(조병희, 2006a). 한방은 개항 이후 서양의학과 경쟁할 당시 대중에게 종합적 의료로 이해되었다. 실제 일제 강점기시기 벌어졌던 동서의학 대 논쟁 당시 양방은 별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없었다. 오히려 한방이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했다. '세균설'에 기반하고 있는 양방이 세균의 박멸이나 병소의 제거에 애쓰는 반면 한방은 종합적으로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었다(박윤재, 2005).

하지만 의료 소비자의 의료인식 변화에 따라 양방과 한방의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었다. 그리고 '보조적 치료'라는 인식에 따라 한방은 경쟁상대가 생기게 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이 그 중 하나이다. 박상희(68세, 남성, 면담일자: 2012년 7월)씨처럼 보약 대신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다는 인터뷰는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양방의사인 윤주형씨(의사, 40세, 남성, 면담일자: 2014년 1월)도 건강기능식품이 충분히 보약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만성질환 관리를 건강기능식품과 연계시키는 행위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모두 양방에 의한 '정확한 진단 후 치료'라는 담론에 의한 결과이다. 한약 역시 이러한 프레임에 갇힌 것이다. 그런데 한방과 달리 건강식품이 대중적으로 많이 팔린다고 해서 양방의 질병에 대한 약 처방이나 진료가 줄지는 않는다. 양방에서는 이들을 경쟁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윤주형씨는 건강기능식품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건강기능식품하고 한약하고 경쟁하는 것이지 병원하고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건기식(건강기능식품 줄임말- 연구자 주)으로 완전히 분류된 것이 있다. 다른 곳은 말고 병원에서만 팔아라. 이렇게 구분된 거요. … 예를 들면 피부과 약이 그런게 많은데 로션이라든지… 약국 말고 병원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을 처방은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것들…… 근데 수익은 별로 안 나니까… 누가 하든 관심 없다. … 지금은 몇 군데 빼고 한방에 대해 별로 경쟁의식도 없다. …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고친다는 건강기능 식품들은 다 사기다. … 약을 먹어야 한다. … 그런 것 때문에 처방이 줄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는다고 봐야 한다. 환자들 생각이 예전에는 붕어즙 먹고 나았다고 해서 그런 것만 먹었는데 요즘은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고혈압이라고 하면 고혈압 약은 당연히 먹는 것이고… 건강원에서도 내 몸 보호하려고 먹는 것인데… 굳이 한의원에 가서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보조식품으로 생각하는 거다. 예전에는 이걸 약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걸 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조하는 거다 라고만 생각하죠. … 고혈압 처방건수는 더 늘어갔을 거다. [윤주형, 의사, 40세, 남성, 면담일자: 2014년 1월]

한방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어 양방의 보조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이 경쟁자가 된다는 생각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양방치료를 더욱 강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셋째, 한약이 가진 의미를 건강기능식품과 공유하게 되었다.

한약소비는 70년대 이후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크게 늘었다고 알려져 있다. 경제적 상황과는 별도로 대중은 보약을 통해 미약한 영양 상태를 보상하고 나름의 건강관리를 하려고 노력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러한 경향은 바뀌기 시작했다. 더 이상 영양상태 부족으로 인해 건강관리를 하지는 않는다. 건강관리는 낙후된 경제적 조건에서 몸의 영양상태 보완을 위한 것에서 불시에 찾아오는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개념이 바뀌었다. 한의사 김진천씨는 이렇게 바뀐 건강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2015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 아마도 예전 2000년 즈음을 기준을 건강관리 개념이 바뀐 것 같다. … 그 이전은 허로(먹는 것에 비해 일하는 것이 많아 생기는 병)에 의한 질환이 많아 보약이 많이 선호되었고… 이후로는 반대로 덜어내는 경우가 많아서 보하는 약(살찌는 약?)을 기피하게 된 것 같아요. … [김진천, 한의사, 37세, 남성, 면담일자: 2014년 3월]

건강식품에 대한 이러한 기대효과는 한방에서 대중적으로 내세우는 논리와 거의 일치한다. 음식을 상시적으로 섭취하는 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상정한다. 한의사 김진천(가명 37세 한의사 남성)씨는 '식약동원(食藥同原)'이란 표현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이 가진 맥락이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는 한의학적 전통과 비슷함을 주장했다. 이와 같이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이 맥락적으로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은 본래 한약이 담당하고 있던 의미의 영역에서 건강기능식품이 함께 경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한약소비에 내재한 의료담론

이 장에서는 한약 소비에 내재한 담론과 의미들을 밝힌다.

의료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담론이 존재한다. 한약 소비에서도 한약자체와 이를 생산하는 '원료'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료담론'이 공존한다.

첫째, '한약은 보약이다'라는 담론이다. 의료이용자는 한약을 통해 '보약'을 연상한다. 나윤선씨처럼 한방의 '보약'을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응은 전형적이다.

> 몸이 허약한 사람이 보약을 먹을 때 찾는 곳, 양방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할 때 수술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체방안으로 찾는 곳, 노인들의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할 때 침 맞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상이 있다. [나윤선, 44세, 여성, 면담일자: 2012년 7월]

하지만 한방 의료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보약을 뜻하는 한약구입액 자체도 답보상태이거나 사실상 줄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보약'에 대한 의료이용자의 태도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요인은 '예방' 담론의 확산이다. '예방'은 '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양방의 한 축을 담당한다. 한방에는 '예방'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박석준, 2006). 그런데 '조기 암 검사'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질병을 양방의 방식으로 '예방'하려는 의료이용자의 태도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백영경 & 박연규, 2008).

'예방담론'의 확산에서 보약을 '과학적'이란 명제를 통해 해석하는 의료이용자의 태도를 유추할 수 있다. 한방병원에서 만난 서수예씨가 지적한 '과학적'이란 명제는 한약이 '보약'으로 한정되는 의료이용자의 의식의 흐름을 보여준다.

> 한의학은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기가 어렵다. 치료보다는 몸이 건강하도록 기운을 보강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보약을 먹으면 원기회복에 도움이 되고 몸보신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실제로 한의원에서는 약을 짓게 하려고 "기가 허하다" 느니 하면서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된다고 말한다. 양방은 최첨단 기계로 정밀하게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가 잘 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어디가 아프면 내시경, CT나 MRI를 찍어서 보면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다. 이렇듯 과학적이어서 확실히 알 수 있고 믿음이 가지만 한편으로는 불만도 많다. 개인의원에서는 약처방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 되기도 한다. [서수예, 43세, 여성, 면담일자: 2012년 7월]

'한약'이 '보약'으로 한정되어 버리는 이와 같은 담론은 의료에 대한 양방식 해석과 '한방은 양방의 보조적 치료'라는 담론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양방에 반대되는 정체성을 형성해 온 한방의 전략 때문이기도 하다(이성오, 2015). 한방이 자신만의 독특한 인식의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양방과 같은 인식의 틀에서 움직이다 보니 특정영역에 한정되어 버리는 사례를 '한약은 보약'이란 담론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의료에 개입하는 정치사회 그리고 문화적 요소가 대중의 의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중국산 한약재의 사용으로 인한 한방 의료의 신뢰 상실'이다.

자동차, 이동전화서비스, 생명보험 등 10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 소비자 신뢰 평가를 위한 조사에서 '한약 및 한약재'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허민영, 나광식, & 윤민섭. 2013). '중국산 한약재의 사용'으로 인한 한약에 대한 신뢰 하락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한약 소비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 국산 한약재 생산량은 감소 추세인 반면, 한약재 수입량은 증가

ⓒ 2015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국내 한약재의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한약재를 생산할 기반이 줄어들어 해외수입에 의한 국내 한약재 생산기반 붕괴의 우려가 있다. 이는 농산물 소비에 내재해 있는 시장, 품질, 그리고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생산에 반영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최영찬, 2013). 국내 한약 재료의 수급이 안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식품법과 관련한 '한약제 이력추적제'와 같은 법체계의 미비를 지적하고 이를 방관한 한의사의 잘못을 지적한 의견이 있다(송기호, 2010). 결과적으로 국내 법체계의 미비로 인한 '한약 재료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 한약시장을 중국산 한약재가 다수 점유하게 되었다. 한약 재료에서 비롯된 한방의 침체가 단순히 의학 자체의 문제, 한의학 전문가, 그리고 의료체계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말하고 있다.

폐지되었던 '한약재 이력 추적제'를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실질적인 한약재의 질을 높이려고 하기 보다는 한약재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제도를 다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중국산 한약재가 실질적으로 국내 한약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다. 현 상황에서 이 제도의 시행이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또한 한의사들 사이에서도 가장 관심 없는 이슈이기도 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중국산 한약재의 사용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방에 부정적인 다음과 같은 인터뷰는 연구과정에서 쉽게 들을 수 있었다.

> 요즘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제가 중국산이라고 한다. 중국산 약에 대한 문제로 싫어한다. 금속제 발견되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한다. 엄청… 믿을 수 없다. 한방 약제를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체취해서 먹는 것은 믿을 수 있지만… [정병주, 73세, 남성, 면담일자: 2012년 7월]

30대 초반의 젊은 한의사 고환영씨의 한약재 오염에 대한 이러한 대중인식에 대한 강한 불만에서 '의료의 표준화' 담론이 읽을 수 있다. 검역이라는 제도가 있고 한의원에 들어올 때도 검사를 거친 재료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인식이 퍼져있는가?'라는 불만이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한약재, 중국산, 그리고 잔류농약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다. 인터뷰에서 그는 진료실에서 쓰는 약재가 대중의 잔류농약과 중국산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검역을 거쳐 표준화되도록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 의료용 약재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쓸 수 있게 된 게 너무 고마워요. 검역이 철저히 되요. 제 자신이 검역이 된 품목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죠. 환자들이 문제 있는 약재를 쓰지 않느냐 의심하고 뉴스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요. … 그 전까지 썼던 한약재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얼마 전 뉴스에서 임신시약 테스트에 쓰이는 약이 잘못되었다고 그 병원에서 그 약을 쓰신 분들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의사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의사들을 대하는 태도와 한의사들을 대하는 태도는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이러한 의료용 약재라는 포장은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고환영, 한의사, 34세, 남성, 면담일자: 2012년 6월]

'안전성'이란 담론이 규격에 맞춘 '포장지'를 통해 '표준'이 확보된다고 여기고 있다. 의료 소비자가 일반 상품에 통용되는 '중국산'이란 가치기준을 한약에도 적용시킨 까닭은 안정성을 위한 '표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한약재를 약용과 식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나라뿐이어서 검사가 덜 엄격한 식용으로 수입되어 약용으로 전용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정호근 & 조국훈, 2012). 약용과 식용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현상이다. 일반 상품과 의약품이 다르고 엄격한 표준화 작업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표준화시키기 힘든 한약재의 특성으로 인해 '한약'이 불신을 얻고 있는 경향을 '중국산 한약재' 담론에서 볼 수 있다.

셋째, 한약의 '간독성'과 같은 부작용 담론의 확산이다. 한방이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왔지만 부작용에 대한 담론 또한 널리 퍼져 있다. 예를 들어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한약의 간독성' 등이 그것이다.

'한약 부작용'에 대한 담론에 대해 한의사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양방의 터무니없는 모함이라는 주장이다. 양방 식으로 간수치를 측정하더라도 한약을 복용했을 때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양지은 등, 2012). 양방의 한약에 대한 간독성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이다. 다른 하나는 양방의 기준에 맞춰 신체를 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라는 주장이다. 이런 입장에서 한의사 박호재씨는 고혈압, 당뇨, 혹은 간수치 등 양방에서 질병의 진단기준으로 삼는 수치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 의사들이 한약이 간독성을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병원에 가서 피검사 해보고 간수치가 높게 나오면 맨 먼저 물어보는 게 한약 먹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한약에 대한 폄훼입니다. 그에 대한 논문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석박사 논문 쓸 때도 사용되었던 한약도 모두 간독성 검사를 다 했습니다. 기존 논문에 나온 처방들은 대부분 그러했으며 논문에 나오는 처방 이외의 처방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즉 한약의 처방에는 문제가 없으며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약재의 문제이지만 이것도 의료용 약재를 사용하는 한의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식품용 약재를 사용하는 다른 곳들의 한약까지 싸잡아 한약이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독성 담론의 기원을 알려면 어디서 먹었나를 확인해야 할 거시며 한약의 문제를 싸잡아 하는 소리에요 … 그리고 몇 천년 동안 치료를 했던 것인데… 만약 간독성이 있다면 옛날 사람들은 모두 간독성으로 죽어야 맞는 말이다. [박호재, 한의사, 48세, 면담일자: 2014년 1월]

언론 혹은 의학드라마 등 대중 노출이 쉬운 미디어를 통한 한약의 간독성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통해 간접적 홍보가 되기도 한다. 의료이용자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의료인인 양방의사는 '한약'에 대해 단호하게 '복용하면 안된다'라는 입장을 전한다. 양방의사인 윤주형씨는 한약의 간독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 … 일반 약은 필요한 성분만 넣는다. 그런데 한약에선 예를 들면, 당귀가 좋다고 하는데 당귀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좋은 것이지 당귀 자체가 이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용량을 맞출 수 없다. 같은 약재라고 해도 혈압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가? 양약은 맞추지만 저도 수치가 100이 넘어가면 한약이나 건강원에서 즙내서 먹는 것 물어봐요. 사실 한의원에선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젊은 한의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심을 하는데 요즘 문제는 건강원이에요. 불법으로 짓는 환 이런 거… 오히려 한의원에서 지은 한약은 괜찮은 경우가 많다. 일단 먹어보고 한 달 후에 수치 재어보자고 한다. 근데 건강원은 문제다. [윤주형, 의사, 40세, 남성, 면담일자: 2014년 1월]

한약 부작용 담론은 '양방위주의 검증'과 '과학성'에 대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한약의 간독성 문제는 한방 쪽 보다는 대중이 한약이라고 생각하는 건강원,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약용과 식용 약제가 구분하기 힘든 문제가 한방까지 확대된 것이다. 한방에서 한약과 다른 분야를 차별화 시키지 못한 데서 발생한 문제이다. 검증되지 않은 한방 이외의 곳에서 조제한 약의 부작용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양방의 힘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이러한 의견은 고스란히 대중들에게 전달되어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한약의 부작용 담론에 들어 있는 '과학성' 문제를 드러내는 것 중 하나가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이다. '자신이 어렸을 때 보약을 잘못 먹어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했다', '보약을 지어 먹으면 살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약 복용 중에 생 무를 먹으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살찐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꺼리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는 쉽게 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담론들은 한약이 과학화, 표준화, 상품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성공한 한약인 우황청심환, 공진단, 그리고 경옥고와 같은 제품들은 이를 증명한다. 다른 한약의 보약과 달리 이름이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약국에서 판매될 정도로 대중적인, 소위 '상품화'에 성공한 한약제품이다. 이러한 한약은 공장에서 제약회사를 통해 대량생산되는 특징이 있다. 연구 중 면담한 대부분의 한의사는 이들 제품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내보였다. 직접 조제하지 않고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 놓은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환'의 효능을 의심했다. 이들에게 진정한 한약이란 한의사가 직접 조제한 한약을 말한다. 연구자는 한방이 일원화되고 통일된 규칙과 원칙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아닌 한의사 개개인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독특한 의료 행위로 정의되고 있음을 연구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한약에 대한 양방식 해석이 의료이용자의 주된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들의 자가 조제에 대한 신뢰와 상품화된 한약에 대한 불신은 한약소비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여겨진다.

6. 건강기능식품 소비에 내재된 의료담론

한약재는 국산과 수입용이 있지만 거의 10배 넘게 수입되는 한약재가 많다. 국산 한약재의 문제점은 농촌에서 채취한

ⓒ 2015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작물이 식용과 약품의 경계가 불분명하면서 표준화되지 못한 유통 때문에 정확한 생산수량 파악이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입한약재가 통관 과정을 통해 분명한 유통량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이러한 농촌 생산 한약재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이다. 이 장에서는 한약의 대체재로 이용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담겨있는 의미를 홍삼을 중심으로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상품화의 관점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약소비감소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와 상징을 밝히고자 한다.

한약이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상품화에 성공하지 못하여 소비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반대로 건강기능식품이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상품화에 성공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종원 & 도재호(2005: 207)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은 3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둘째, 통상의 식품형태가 아닌 정제・캅셀・분말・과립・환이라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셋째, 건강기능식품이기 위해서는 제조 가공식품이어야 한다." 홍삼은 이러한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상품화특징을 가장 잘 구현하는 가장 비중이 높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주요 건강기능식품 회사 역시 홍삼을 주로 생산한다(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정명진, 김수민, 윤지영, 김근령, & 윤성근, 2013).

홍삼은 '항산화' 기능에 대해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인가를 받을 정도로 과학성을 인정받고 있다(이종원, 2012). 양방의사도 한약과 달리 홍삼의 과학성에 대해 인정한다. 홍삼이 건강식품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양방 의사 윤주형씨는 '과학화'와 연관 지어 설명했다. 한방이 과학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의 외면을 받은 것이며, 홍삼은 양방도 인정할 만큼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선택을 받는 것이란 의견이다.

> … 비아그라 때문에 한약이 몰락하게 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한재 지으면 30만원 넘었는데 지금은 비아그라는 싸고 두 번째가 홍삼이고 의사들도 홍삼의 효과를 인정을 했어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서 낳았다고 하는데 근거를 대봐라 해도 근거를 대지 못해요. 근데 홍삼은 의대에서도 연구를 많이 한다. 홍삼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나온다. 암에 대한 효과도 있고 혈압에 대한 효과도 크다고 나온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비싸게 돈 주고 한약 사먹느니 홍삼 사먹고 그러는 것 같다. [윤주형, 의사, 40세, 남성, 면담일자: 2014년 1월]

한방이 과학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담론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성과를 가진 홍삼이 한약을 대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홍삼이 과학성을 인정받게 된 까닭은 원료인 '인삼' 때문이다. 인삼은 식민지시기부터 과학적 효능을 인정받아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신창건, 2007). 그런데 양방이 '과학적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한약을 바라보는 방식을 한방 측에서 보자면 식민지 시기 일본이 했던 것처럼 검증되는 부분만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나머지는 버리는 방식이다(조병희, 2006a). 한의사 김가람씨도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 한방의 과학화란 한방이 좀 더 현대인에게 이해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과학이라고 증명이 되면 의사가 가져가요. … 지금이요. … 천연물 신약도 그렇고 IMS도 그렇고… [김가람, 한의사, 33세, 남성, 면담일자: 2013년 3월]

'과학'이라는 타이틀을 양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용은 양방에서 하게 된다는 불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며 홍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되는 '과학화'라는 담론은 의료이용자와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소아치과 전문의면서 소아전문병원을 운영하였고, 지금은 성인진료를 하고 있는 권병운씨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한의사와 영역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치과의 전문 영역인 턱관절 치료를 배우기 위해 주말마다 천안을 왕복했다고 한다. 치과 전문의임에도 그는 치과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을 한의학에서 발견하였다고 말했다.

> 의사들이 한의사들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한의사들이 의사들이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모르니까 OOO한의원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이해가 되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걸 이해시켜주니까 해보니까 연결이 되요. 한방적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턱이 하는 역할에 대해 이해가 됐고 우리는 기계적으로 보니까 턱이 생리적 하악 위의 역할이 척추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줬다. 결국 그 한의원에서 하는 행동이 C1, C2를 배열하는 것이었다. 치과에서 대부분 해결된다. OOO원장님 술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2프로 환자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한의학적 관점을 적용시키면 그 환자들이 해결

ⓒ 2015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이 된다. 우리는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듣는 것이다. [권병운, 치과의사, 42세, 남성, 면담일자: 2014년 6월]

그가 느낀 한의학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의학이 '과학화' 되어 있지 못하다고 비난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는 턱관절치료에 대해 강의해준 한의사를 자신의 분야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홍삼에 내재해 있는 '과학화'의 관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다양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가이다. 홍삼의 성장은 이러한 '과학화'에 대한 의미를 한약보다 더 충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둘째, 홍삼에는 표준화 담론이 담겨있다. 한방은 '한의원마다 처방이 다르다'라는 담론을 가지고 있다. 표준화 되지 못해 한방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에서 나온 담론이다. 송필순(58세, 남성, 면담일자: 2012년 7월)씨처럼 한방병원에 다니면서도 양방과 비교해 일관되어 보이지 않는 한방진료에 대해 "같은 질환에 대해 한의사가 말하는 것이 다르다"고 전한 불만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다.

미국에서 '플랙스너 보고서' 이후 의학은 과학과 같기 때문에 표준화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가르친다(폴 스타, 2012). 모든 의사가 특정 증상에 대한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담론을 가진 양방의 '표준화' 논리는 한방 비판에 이용된다.

약과 경쟁하는 홍삼은 매우 표준화 되어있다. 홍삼을 보약 대신 이용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이유를 한의사 박호재씨는 다음과 같은 말했다.

> 비아그라, 홍삼의 경우… 접근의 간편성(선물 등), 대기업의 홍보, 대량생산의 비용절감, 브랜드의 호감 등이 현대인에게 쉽게 다가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보약시장은 홍삼시장으로 옮겨간 듯 해요. …… 대중화된 것은 대기업의 시장참여 이후부터이고… 한의원의 보약시장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고 봅니다. … [박호재, 한의사, 48세, 면담일자: 2014년 1월]

대기업을 비롯한 자본력을 가진 존재가 의료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약품 생산이 일반 상품의 생산과 같은 형태를 띠면서 한약 위축이 심화되었다는 생각이다. 홍삼은 한약의 보약엔 없는 대량생산, 표준화 된 규격으로 제조되고 판매, 상품의 이미지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농촌지역인 OO지역은 홍삼을 통해 경제적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연구과정에서 만난 OO군 공무원 임길성씨는 진안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홍삼과 한약재배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해주었다.

> 예전엔 홍삼 대신 인삼을 주되게 재배했다. 하지만 인삼은 OO에 선수를 빼앗긴 면이 있다. OO에서 정해진 가격이 OO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OO은 홍삼으로 전략 종목을 변경했다. 그래서 홍삼 재배 농가에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공장을 설치하고 군에 신고를 하면 지원을 하고 허가를 해준다. 대신에 군에서는 생산물에 대해 상시적으로 검사를 통해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생산과정에 대해 규정을 지키는지를 검사한다. 하지만 한약재에 대해선 홍삼처럼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홍삼처럼 OO지역에서 한약재를 재배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하수오'처럼 재배하고 있다가 그만 둔 것도 있다. 그리고 '황기'처럼 국산보다 중국산이 훨씬 값이 싸다. 그래서 굳이 농민들이 재배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 [임길성, 공무원, 53세, 남성, 면담일자: 2015년 9월]

한약과 홍삼의 원료를 생산할 때 내재되는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상업화' 담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담론들 속엔 '과학화'처럼 의료이용자와의 소통이란 관점이 숨어 있다. 한의사 박호재씨에 따르면 '표준화'는 대중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수단이다.

> 용어의 현대화 등 대중들이 원하는 부분을 한의사들도 고민 중이나 워낙 방대하므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같다. … 반드시 그것대로 치료하지는 않더라도 앞에서 말한 증상들이 하나로 꿰어지면 저희들은 하나의 병으로 진단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정말 버거워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음허, 허허, 양허 이런 말들을… 담이 약하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옛날 사람들을 그 말의 의미를 일반 사람들도 알아듣고 의료업을 하는 사람들도 알아듣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쓰는 용어를 글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죠. … 근데 한의학 용어들을 현대인들에게 이해를 시킬 때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한의학 용어들이 붕 떠버렸죠. 예전에는 한의사가 말하면 못 알아듣더라도 일단 수긍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다 물어봐요. 그게 뭔데요? 하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해시키기도 쉽지 않고 한의사들이 많이 노력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죠. [박호재, 한의사, 48세, 면담일자: 2014년 1월]

ⓒ 2015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과거에는 한의학의 용어와 실생활의 용어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이 한방 용어를 이해하기 쉬었지만 사회가 예전처럼 한문 위주가 아닌 영어위주로 바뀌면서 한의학이 대중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용어의 현대화와 같은 표준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홍삼이 대중화 된 요인인 '표준화'가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문화를 통해 가능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홍삼이 한약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내재해 있는 '상업화' 논리이다. 제도와 결부된 상업화는 해당 상품의 접근성에 관여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용자가 정보를 얻는 수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한 것이 TV 광고였다(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홍삼에 대한 접근성이 상업화된 광고에 의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한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은 가족・친지(55.1%)가 가장 높고, 방송매체(13.7%), 인터넷(12.7%)순이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한약'이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대중과 접촉할 기회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한약'과 '홍삼'의 이러한 차이는 '광고'와 '영업'을 허용한 '건강기능식품법' 4조와 5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의료법'에서 규정된 "의료인"은 의료법 법률 제13108호에 의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서 허용되는 '광고'와 '영업'을 '의료인'인 '한의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이 경쟁하고 있지만 '한약'은 의료인이 다루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은 비의료인이 다루는 것으로 규정되면서 상품판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광고'와 '영업'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보자면 홍삼에 내재해 있던 '과학화', '표준화' 경향은 궁극적으로 '상업화'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연결된 '협동연구개발진흥법'에서 '상업화'에 대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의 제3조(적용범위)에 보면 '기업화', '시장화'가 명문화 되어있다. 보건의료기술을 '시장화' 할 수 있느냐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때문에 현재 한방을 압박하고 있는 '과학화'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상당부분 제약회사와 같은 거대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상업화'이다. 기업의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의학은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한 것이다. '과학화'와 연결된 '상업화'와 같은 경제논리가 사회의 주된 이념이 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송백석, 2009).

이와 같은 논의를 정리해 보면 홍삼으로 인해 한방이 위축된 것은 아니다. 대중이 의료를 바라보는 시선인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상업화 담론이 한약소비를 감소시킨 것이다. 대중은 홍삼 자체보다는 홍삼이 가지고 있는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상업화 논리를 소비한 것이다. 향후 이들 원료를 생산하는 농촌에서 이러한 의미와 상징을 가진 또 다른 상품을 개발한다면 홍삼을 대체하는 또 다른 상징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7. 결 론

농촌에서 생산되는 원료는 소비자들이 해당 생산물에 가지고 있는 담론에 따라 소비된다. 근대의 먹거리 체계가 산업화, 상품화, 그리고 세계화된 '포디즘적 소비'가 일상화 되면서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생산물과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커진다(김홍주, 2012). 같은 한약재로 만들더라도 '한약'과 '한방화장품'의 소비 정도가 다른 현상에서 소비자의 담론에 의한 소비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원료가 거의 모두 농촌에서 생산되는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소비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이를 소비하는 이들은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의료담론'에 따라 접근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어떤 의료담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를 생산하는 농촌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점점 '한약' 소비가 줄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는 대비되는 모습은 이러한 담론에 의한 소비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현상이다.

한방의 위축은 한약소비감소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은 한약소비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의료이용자들은 약의 효능뿐만 아니라 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을 함께 소비한다. 한약소비 감소현상에는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을 의료이용자가 한약 대신 소비하는 행동이 내재해 있다.

전통의학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제도적 보장을 받고 있는 한방은 양방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건강기능 식품과 경쟁하는 관계 구도가 되었다. '정확한 진단 후 치료'라는 담론, '한방은 양방의 보조적 치료'라는 담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이 보약 시장에서 의미를 공유하면서 이러한 경쟁관계가 형성되었다. 한약소비의 감소와 건강기능식품 성장의 상관관계는 이로 인해 만들어졌다.

한약소비 감소와 건강기능식품 성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의료의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상업화' 담론이다. 한약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담론과 홍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이

ⓒ 2015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가지고 있는 긍정적 담론은 이러한 경쟁관계 속에서 의료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 '한약은 보약', '중국산 한약재 사용', 그리고 '한약의 간독성'이라는 부정적 담론은 한방이 양방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 한방 의료의 영역을 한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상업화'의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의료이용자들이 한약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상업화' 담론을 충족시켜 주었다. 건강식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홍삼은 예로부터 인삼에 부여되었던 과학적 이미지와 표준화, 상품화 이미지가 덧붙여져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손석춘(2009; 조영한, 2012: 재인용)에 따르면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되면서 일상적으로 해석되고 여론화' 된다. 또한 세계화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로컬 스탠더드' 사이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박길성, 2008).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방을 친숙하게 만들었던 문화는 '전통문화'라는 담론으로 규정되었다. '전통문화' 담론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의 관점이 실생활을 지배하는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양방위주의 관점이 의료담론의 일상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의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상업화' 담론은 양방 위주의 의료질서가 세계화 담론과 결합된 '의료화'를 통해 구축되어 의료이용자에게 체화된 것이다. 한약소비가 감소되는 현상은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사례이다. 이렇게 구축된 일상성에 적응하지 못한 한약이 건강기능식품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약과 건강기능식품 소비 경향에 내재해 있는 의료담론은 건강관련 농촌산업이 고려해야할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쟁관계에는 '세계화' 담론과 생산과 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가 담겨있다. 따라서 이들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첫째, '건강' 본질에 중심을 둔 정책 수립이다. 세계화와 따라 먹거리 체계가 자본의 지배를 받는 방식으로 구조화 된 것처럼 '한약' 소비와 '건강기능식품'의 소비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 있다. 하지만 자본에 의한 먹거리 체계가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위험성(송원규 & 윤병선, 2012)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세계화담론에 의해 한약 소비가 감소되는 현상 역시 건강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자본의 이익이 아닌 '건강' 본질을 감안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한약재 등 건강관련 생산물의 '생산, 유통, 효능개발'에 대한 엄격한 '과학화', '표준화'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투명하고 단선적인 구조로 움직이게 만들어 최상의 '상품화'를 실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홍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한약 소비 경향에서 드러난 담론의 반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홍보, 그리고 소비자와의 소통 부족을 극복하는 정책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가야트리 스피박 지음/태혜숙, 박미숙 옮김. (2006). *포스트식민이성비판*. 갈무리.
2. 강내희. (2008). 문화와 시장: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문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5*(2), 235-258.
3. 게리 폴 나브한/강경이 옮김. (2009). *지상의 모든 음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카이브.
4. 김경미, 문지혜, 정순진, & 이상미. (2013). 한국 치유농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4), 909-936.
5. 김미희, 박덕병, 노경희, & 손은호. (2010). 이미지를 활용한 지역브랜드 개발. *농촌지도와 개발*, *17*(4), 827-849.
6. 김명진. (2001). *대중과 과학 기술*. 잉걸.
7. 김원식. (2009). 생활세계 식민화론의 재구성: 배제, 물화, 무시. *사회와 철학*, *18*, 99-124.
8. 김윤성. (2004). 몸, 질병, 근대성: 근대의학과 개항기 한국사회. *한신인문학연구*, *5*, 283-312.
9. 김윤호, 이나라, 이상영, & 황성원. (2013). 한우브랜드의 포지셔닝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4), 1181-1216.
10. 김태우. (2011). 한국 의료인류학의 가능성. *한국문화인류학*, *44*(3), 149-172.
11. 김흥주. (2012). 먹거리 신뢰의 구조적 특성과 영향요인분석. *농촌사회*, *22*(1), 173-214.
12. 나선삼. (2008). 한의학은 철학이고, 서양의학은 과학인가?. *의철학연구*, *6*, 35-53.
13.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 세분시장현황: 건강기능식품시장 market report.
14. 도경록, & 박덕병. (2013). 음식을 활용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략. *농촌지도와 개발*, *20*(4), 1079-1103.
15. 마르시아 안젤 지음/강병철 옮김. (2007). *제약회사는 어떻게 우리 주머니를 털었나*. 청년의사.
16. 미셸 푸코/홍성민 옮김. (2006). 임*상의학의 탄생: 의학적 시선에 대한 고고학*. 이매진.

ⓒ 2015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17. 민가영. (2009). 신자유주의 질서의 확산에 따른 십대 여성의 성적 주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5*(2), 5-35.
18. 박경용. (2008). 원로 한의사의 의료적 실천과 문화적 함의. *인문과학*, *41*, 237-270.
19. 박길성. (2008). 한국사회의 갈등지형과 경향. *한국사회*, *9*(1), 5-30.
20. 박석준. (2006). 한의학의 몸: 황제내경의 몸에 대한 이해. *의철학연구*, *2*, 35-54.
21. 박윤재. (2005).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혜안.
22. 박윤재. (2007). 일제하 의사계층의 성장과 정체성 형성. *역사와 현실*, *63*, 163-189.
23. 박충범, 강용구, 안태진, 김금숙, & 한신희. (2011). 약초 산업의 진화: 21세기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으로-. *RDA 인테러뱅*, *14*.
24. 박형신. (2010). 먹거리 불안, 파동의 발생 메커니즘과 감정동학. *정신문화연구*, *33*(2), 161-193.
25. 백영경, & 박연규. (2008). *프랑켄슈타인의 일상*. 도서출판 밈.
26. 손석춘. (2009). 신자유주의에 대한 언론과 비판언론학 비판. *한국언론정보학보*, *45*, 49-76.
27. 송기호. (2010). *맛있는 식품법 혁명*. 김영사.
28. 송백석. (2009). 신자유주의 지구화담론 비판. *한국사회학*, *43*(1), 188-219.
29. 송원규, & 윤병선. (2012). 세계농식품체계의 역사적 전개와 먹거리위기: 대안의 모색 식량안보에서 식량주권으로. *농촌사회*, *22*(1), 265-310.
30. 신창건. (2007). 경성제국대학에 있어서 한약연구의 성립. *사회와 역사*, *76*, 105-139.
31. 양지은, 이기훈, 김양석, 신민규, 유진호, 장규태, et al. (2012). 乾癬(건선)으로 3개월 이상 한약을 복용한 환자 82명의 간수치 변화. *대한한의학회지*, *33*(3), 95-104.
32. 이상원, 김승유, 김영옥, 김형돈, & 손상현. (2012).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동력, 농업: 농산업의 블루오션, 프리미엄 화장품. *RDA 인테러뱅*, *84*.
33. 이상이, 김창보, 박형근, 윤태호, 정백근, & 김설웅. (2009).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도서출판 밈.
34. 이성오. (2015). 양방중심의 헤게모니적 의료화와 한방의 위축. *건지인문학*, *14*, 209-245.
35. 이영아. (2010).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내재화된 식민지성: 근대국민국가에 갇힌 몸. *진보평론*, *44*, 12-40.
36. 이영자. (2011). 신자유주의 시대의 초개인주의: 개인주의의 후기 근대적 변종. *현상과 인식*, *35*(3), 103-127.
37. 이종원, & 도재호. (2005). 건강기능식품의 시장현황 및 인삼시장의 전망. *J. Ginseng Res.*, *29*(4), 206-214.
38. 이종원. (2012). 홍삼제품의 산업현황 한국자원식물학회 학술심포지엄. 한국자원식물학회.
39. 이지원, & 백승욱. (2012). 한국에서 생명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한국사회학*, *46*(2), 88-122.
40.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2008). *인문의학: 고통! 사람과 세상을 만나다*. 휴머니스트.
41. 장세길. (2014). 한지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화 방안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1*(3), 121-154.
42. 정호근, & 조국훈. (2012). 약용작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 KREI 농정포커스 제2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3. 정명진, 김수민, 윤지영, 김근령, & 윤성근. (2013).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4. 조병희. (2006a).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집문당.
45. 조병희. (2006b). 생의학과 한의학의 사회적 관계: 갈등과 통합. *의철학연구*, *2*, 83-110.
46. 조영한. (2012).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읽기: "국면적인 경제 읽기"를 제안하며. *커뮤니케이션이론*, *8*(2), 22-64.
47. 조지리처지음/김종덕 옮김. (2003).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시유시.
48. 최영찬. (2013). 농식품산업의 변화와 연구. 지도사업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20*(4), 839-869.
49. 최종덕. (2003). 한의학의 과학 콤플렉스. *과학사상*, *48*, 24-39.
50. 캐롤 M. 코니한 지음/ 김정희 옮김. (2005). *음식과 몸의 인류학*. 갈무리.
51. 폴 스타지음/ 이종찬 옮김. (2012). *미국의료의 사회사@폴 스타의 언어로 한국의료 이야기하기*. 의료정책연구소.
5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1차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5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차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5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3차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55. 허민영, 나광식, & 윤민섭. (2013). 한국의 소비자시장 평가지표(consumer market indicators in krea): 시범조사. 한국소비자원.
56. 허민호. (2012). 보건 관리 체계의 지정학적 분할과 신자유주의적 변형. *경제와 사회*, *94*, 274-307.
57. Clarke, A. E., Shim, J. K., Mamo, L., Fosket, J. R., & Fishman, J. R. (2003). Biomedicalization: Technoscientific Transformations of Health, illness, and U.S. Biomedicin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April), 161-194.
58. Conrad, P. (2005). The shifting engines of medicaliza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March), 3-14.

Received 18 September 2015; Revised 05 November 2015; Accepted 05 December 2015

ⓒ 2015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Seong-O Lee 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rch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Ph.D. Candidate,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 are agricultural discourse and medical dicourse.
Address: 365-14, Gunsang-ri, Jinan-eup, Jinan-gun, Jeollabuk-do, Korea 55432, South Korea's representative
E-mail) dorazio@hanmail.net
phone) 82-63-432-1771

ⓒ 2015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